

해의과학기술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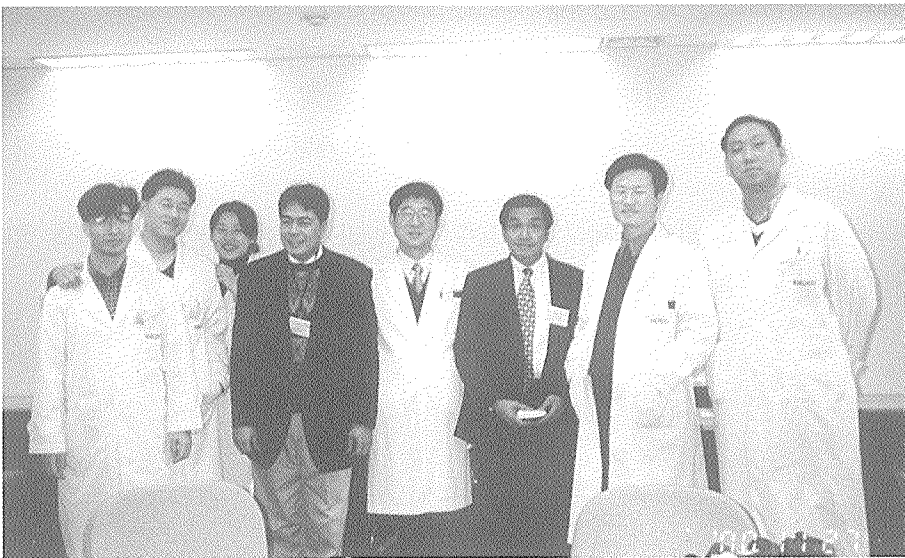
에서 팔리고 있는 28개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에릭슨 T28s를 사용하는 사람이 노키아 8850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방사선을 6배나 많이 받는다고 한다. 연구 저자들은 휴대폰이 작을 경우 휴대폰을 머리에 더 가까이 할수록 방사선의 흡수 양이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 모델일수록 출력이 높아 방사선 흡수 양이 더욱 크다고 한다.

방사선의 흡수량은 인체 kg당 흡수되는 전자파 출력 (W)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휴대폰이 방사선 방출에 관한 유럽 표준치를 넘지는 않았다고 한다.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양에 관한 국제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에서 허용되는 휴대폰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특히 작은 휴대폰의 경우는 그러하다. 이 연구결과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많은 휴대폰이 출하를 앞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출처 : <http://www.smh.com.au:80/news/0012/04/text/pageone111.html> : 2000년 12월 04일]

유관기관동정

방사선보건연구센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위탁 교육 훈련 실시 과정명 : "Medical Planning & Care in Radiation Emergency"



한국전력공사 방사선보건연구센터(센터장: 김중순박사) 는 지난 11월 27일(월) - 12월 8(금)까지 2주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청에 의한 외국인 위탁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필리핀 의사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방사선생물학, 보건물리학 등의 이론적인 내용부터 방사선비상사고시 응급의료 처치 등의 의학적 기술,

물리적/생물학적 방사선 피폭량 평가 실습 등으로 일반 교육훈련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선비상의료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우리회사 방사선보건연구센터를 지정하여 향후에도 이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금년 10월에는 이미 국내 관계 의료진 및 방사선안전관리 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필리핀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실제 사고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일반외과 및 정형외과 의사였으며, 필리핀에서 방사선사고시 이를 담당할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어서 이번 교육은 우리 센터를 모델링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해온 바 있다.

이 교육은 방사선 비상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구호를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첫째 주에는 주로 방사선 사고에 대한 총론 및 역사, 생물학적/ 물리적 계측법, 실제 사고시 관리 및 치료법, 정부 및 행정기관의 역할, 원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전반적 안전 대책법 등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 졌다.

강사진은 방사선보건연구센터장(김종순 박사)을 비롯한 센터 자체 강사진과 회사내 원자력 안전처, 과기부, 서울대의대, 전남대의대, 국립 암센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질적인 면에서도 교육의 수준을 가름할 수 있고, 모두 영문강의로 이루어졌다.

둘째 주는 주로 계측에 대한 실습 및 방사선의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발전소 및 각 기관(서울대병원, 환경기술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강의가 끝난 후,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강의 평가에서는 전반적인 이해 및 업무에 무척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였으며, 향후 교육 대상자를 더 늘이는게 좋겠다는 추천도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센터에서는 연수생 특성에 따라 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의 질적수준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기술수준을 알리는 것은 물론 우리회사의 국내외 위상제고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